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 (엡2:4)

◎ 생활지침 ◎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었는지 보이시옵소서”

안수집사 · 권사 후보 선정... 다음 주일 공동의회서 투표

제 4대 안수집사와 권사가 다음 주 선출된다. 당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의거, 제 4대 안수집사와 권사 후보를 결정, 오는 6월 1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를 열어 투표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의회에서는 안수집사 40명을 선출하는데 후보는 1,5배수인 60명이 선정되었다. <명단은 3면>

안수집사 후보는 서울교회 규정집과 헌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지며 나이는 40세 이상(57년생 포함)이다. 안수집사 후보 중 공동의회에서 투표인의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고 6개월간 당회의 지도 하에 교육을 마치면 오는 11월 교회설립 제 6주년 기념일에 집사 안수를 받게 된다.

한편 권사는 당회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자를 후보로 했다. <명단은 4면>

권사 후보의 자격은 규정집과 헌법에 정

한 대로 하되 나이는 50세 이상(47년생 포함)이다. 이들은 공동의회에서 가부를 묻고 6개월간 당회의 지도 하에 교육을 마친 후 오는 11월에 임직을 한다.

총회헌법에 따르면 집사의 자격은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

별력이 있고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된 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18 ~ 10절에 해당하는 자”, 권사의 자격은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45세 이상된 여신도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97 홍해작전 진군준비 완료

’97 홍해작전준비위원회는 지난 주 이미 행사개요를 확정 발표한 바 있고 이번 주에는 7개부서 참모조작을 확정하고 진군준비를 완료했다. 확정된 ’97 홍해작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8면에 조직표>

- 주 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 주제성구: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합 3:2)
- 기 간: 1996년 6월 6일(목) ~ 6월 25일(수), 20일간 새벽 5 ~ 6시
- 새벽기도회 강사: 이종윤 목사
- 행동강령: 정직 · 절제 · 사랑을 실천한다

아시아복음화의 길 모색

제 8차 김치신학세미나 6일째

네팔, 몽고, 캄보디아 등 아시아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 8차 김치 신학세미나가 20일에 시작하였다. 이 자리에 동참기로 했던 베트남 지도자들은 종교상의 이유로 출국이 어려워 결국 참석하지 못해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했으며 베트남의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실감케 했다.

세미나에 참가한 22명의 목회자들은 새벽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여 오전에는 교회성장 원리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한국의 여러 교회와 기독교대학, 신학교, 성서공회 등을 방문하여 한국교회 성장원리를 배우고 있다. 다락방 모임에 직접 관여하여 통해 소그룹 운동의 실재를 보고 배우기도 했으며, 기도원을 찾아 통

성기도와 합심기도를 배우는 기회도 가졌다.

오늘 참가자들은 교회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참관하게 된다. 또한 찬양예배 시에는 세미나에 참가한 목회자들의 소개와 간증 순서도 있다.

또한 내일은 목회자신학세미나 현장을 찾아 목회자들의 재교육 현장을 보며 목회자세미나에 참가한 한국의 목회자들과 교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강의와 토론, 견학 등을 통해 배운 것을 자국복음화에 적용하기 위한 국가별 전략모임을 가진 후 28일(수) II부 예배 시간에 폐회예배를 드림으로써 세미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찬양예배 시간증과 소개의 순서
수료감사예배 28일(수) 오후 7시

부목사 두 분 청빙

민영수목사와 김정현목사가 6월1일부로 새로 청빙된다.



민영수목사는 58년생으로 장로회신학대학과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천산성교회와 안양계일교회 부목사를 역임했으며 이미숙사모와 민병훈(8), 민충만(6) 등 2남을 두고 있다. 민 목사는 5·6교구, 중등부, 찬양위를 지도하게 된다.



김정현목사는 61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와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성덕교회, 동승교회, 산성교회 부목사를 역임하였으며 김영미사모와의 사이에 김주성(11), 김수민(8) 등 1남1녀를 두고 있다. 김목사는 7·8교구, 청년부, 전도위, 선교위를 지도하게 된다.

창세기 강해

49장 29 ~ 33절

창세기는 49장에서 야곱의 죽음, 그리고 50장에서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던 야곱도 보통 사람과 똑같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평생을 몸부림 치며 살았지만 자기의 무덤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분노하는 형에서의 눈은 피했지만 결국 죽음의 추격은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베엘 뜰에서 열린 하늘문을 보고 돌베게를 베고 잠을 잤으나 이제는 누구나 들어가야 하는 죽음의 문을 들어야만 합니다. 압복장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여 목적을 달성했지만 이제는 이길 수 없는 천사와 씨름하여 죽음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죽음을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열 두 아들을 침상 옆에 세워놓고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혹은 경건을 권고하기도 하며 축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죽음이 도래했을 때 성도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야곱은 오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야곱은 헛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곧 자기의 조상이 묻힌 곳, 또 자기 아내 레아가 묻힌 곳에 자기를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자신이 자기의 조상들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기 육신도 조상이 묻힌 곳에 매장되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고 한 말은 믿음으로 죽은 조상들과 함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고 했고(창 25:8), 이삭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창 35:29).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곳, 곧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며 더 중요한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들은 이제라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이고, 믿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죽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관심이 있다

야곱은 막벨라 굴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

습니다(29 - 32절). 야곱은 우선 막벨라 굴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들의 무덤임을 자식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조상들은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땅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묻힌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나타낸 것입니다.

야곱의 죽음



이종운 목사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헛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헛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서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 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헛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진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창 49:29 - 33)

야곱은 그 땅에 살기를 소원했고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자신을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야곱이 막벨라 굴에 이같이 관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 즉 이 세상과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부지런히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3. 우선권의 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는 반드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

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고 라헬은 그가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실 야곱의 진정한 아내는 라헬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야곱의 이야기를 애정 소설로 썼다면 야곱은 막벨라 굴이 아닌 에브랏길(창 48:7), 곧 라헬의 옆에 장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간적인 애정을 따르지 않고 신앙을 따라 조상들의 무덤을 택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만 중요하고 국가나 민족은 망하든지 말든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을 하며 영혼을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려 함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바르게 살고 천국에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내세에 대해서 전혀 잊고 산다면 이 세상은 산지옥이 될 것입니다. 혼돈과 무법과 부도덕과 악으로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말을 너무 자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천국을 너무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미루면 안됩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어느 날엔가는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 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며 영원의 빛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을 들어 아시아를 보라!

15 데버 꾸마르 체프리



1. 퓨탈리 사담교회 전도사
2. 1967년 4월 4일생
3. 부인과 두 자녀
4. ① 목회
② 시간강사
5. ① 학업을 더 할 수 있도록
② 교회의 재정과 건물 문제를 위해
③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가족들이 좋은 증인이 되도록

이름

1. 소속교회, 직분
2. 생년월일
3. 가족
4. 현재의 사역
5. 기도제목

20 무곤더 마이클 커더카



1. 네팔 신학교 교장
2. 1954년 2월 14일생
3. 부인과 1남
4. 네팔신학교 교장
5. ① 가족들을 위해
② 새로 시작한 라디오방송(FM) 사역을 위해 - 록뮤직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데 복음성가를 전할 수 있도록

17 꺼멀리 거말리



1. 나디퍼교회 전도사
2. 1974년 6월 21일생
3. 부인과 1남
4. ① 목회(노방전도에 주력하고 있음)
② 기독교학교 교장
5. ① 조국 네팔과 내 주변에 복음이 미칠 수 있도록
② 학교 · 학생들 · 동역자들을 위해
③ 자선학교인 우리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1 매튜 필립



1. 나디퍼교회 목사
2. 1947년 5월 22일생
3. 부인과 1남 1녀
4. 인도인으로서는 네팔 선교사로 파송되었음 (23년간 사역 중)
5. ① 나디퍼 교회의 사역을 위해(주일학교, 청소년 사역, 여성모임, 서점운영의 활성화)
② 새신자와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위해
③ 네팔에서의 내 가족들과 나의 사역을 위해

18 꾸마르 구릉그



1. 나빈교회 목사
2. 1966년 4월 2일생
3. 부인과 1남
4. ① 목회
② 교회개혁(팀을 구성하여 전도, 심방하며 계속하여 교회를 개혁 중)
5. ① 나빈교회의 사역을 위해(전임사역자, 재정문제)
② 나빈교회가 지원하는 5개 교회를 위해
③ 8명의 전임사역자와 그들의 재정을 위해
④ 6년째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를 위해

22 아속 꾸마르 씨



1. 퓨탈리 사담교회
2. 1970년 6월 27일생
4. 주일학교 프로그램 부장, 연합성서공회 멤버
5. ① 네팔에서의 사역을 위해(네팔성서공회)
② 힌두교도인 부모님의 구원과 그들의 건강을 위해
③ 힌두교 신자들인 동네 주민들을 위해

19 이시워리 조시



1. 퓨탈리 사담교회 여성사역
2. 1970년 1월 22일생
4. ① 교회사역
② 네팔YWCA 전임사역
5. 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② 내게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도록
③ 주님을 섬기다 떠나간 영혼들을 위해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5월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 5월의 새가족 *

임백식	김도희	김성임	원창호	구자성	한종표	윤옥순	진경옥
최완옥	전창식	송미자	김미란	김상현	장덕훈	임필수	백영자
임주연	김종록	김병목	한선희	박기태	김중완	장순각	황경수
박우영	윤희정	이병국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교사대학 다섯번째 강좌 ⑤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교사대학 다섯번째 강좌가 오늘 실시된다. II부 예배 후인 오전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진행될 오늘의 강좌의 제목은 '효과적인 반 운영'으로 강사는 홍정근 목사(장신대 기독교 교육연구원)이다.

이 강좌에는 교회학교 교사 전원과 장년부

교사 및 학생 그리고 교사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다.

30일 가족찬양대회 개최

우리 교회는 가정의 달 5월을 마무리하면서 '가족찬양대회'를 30일(금)에 개최한다. 가족창 혹은 다락방중창으로 구성하여 찬송 가나 복음서가 중 자유곡 1곡으로 출전하면

된다.

가족창인 경우 가족구성원의 교구가 서로 다를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다락방중창인 경우 1개 다락방을 원칙으로 하지만 2개 이상이 연합할 수도 있다.

교회에서는 참가한 모든 팀에게 가족사진을 기념촬영해 드리며 6월 1일 찬양예배 시 시상과 아울러 수상팀의 특순도 진행된다.

새로 나온 책



<창세기 II>

세상과 역사의 시작, 인류의 죄와 타락, 형벌과 구원, 심판, 민족의 생성과 나뉘 등 인류의 가장 원초적이고 거대한 주제를 다룬 책이라면 창세기에 비길 책은 없다. 이 종운목사의 창세기강해가 완간됐다.

창세기 강해는 서울교회 수요일 예배 때 이종운 목사의 설교를 묶은 것으로 작년에 '창세기 I' (첫 장 ~ 25장11절)이 나온 데 이어 '창세기 II' (25장12절~ 마지막 장)도 이번에 엮여져 나왔다. '창세기 II'에는 아브라함 사후 이삭과 그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요셉,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이주 등을 다루고 있다. 특별히 이 책의 많은 부분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종운저/필그림출판사/556면/13,000원)



<강해설교와 영적갱신>

"효과적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목회자들이 늘 고심하는 이 질문에 대해 강해설교 측면에서 접근한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신학세미나 시리즈 중 제 5권인 '강해설교와 영적갱신'이 발간됐다.

이 책은 강해설교와 신학(이종운), 현대목회의 문제점과 제안(김영환), 21세기 한국교회의 설교사적 전망(이만열), 예언자들의 설교와 영적 갱신(민영진), 바울의 설교와 영적 갱신(박용만), 성경해석과 강해설교(계지영), 설교자의 영성과 교회갱신(류기중), 주제설교와 강해설교(정성구), 설교와 목회심리(심상권), 설교구상과 실제(김소영), 고난의 역사와 한국의 미래(김상철) 등 모두 11편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종운 편/요단출판사/339면/8,000원)

'97 홍해작전 조직

사령관 이종운 목사

참모장 이남호 장로 부참모장 김영준 장로

- 기획참모: 정병무 임광식 김광신 서문석 하영수 이복규 장예희 김동호 신용식 이상운 오형철 김정수 송인권 박우옥 백혜숙
- 행정참모: 김태기 이용선 황정욱 홍성주 이관규 방계운 최난수 이경희 오형철 김영화 박금재 김순자 유후자 성순자 성수영
- 예배참모: 박철훈 김상철 김일용 윤찬오 노영숙 전인화 박순봉 이민화 오광환 김형택 허상한 이양철 강희자 김영식 이명아
- 찬양참모: 윤봉준 노문환 허희철 박정선 임훈규 김명숙 유복달 이영자 서희숙 탁경준 손병석 김재우 김운자 박연숙 한화선
- 동원참모: 오정수 최중시 왕경래 조성식 김세재 임상헌 김선미 이점숙 백영희 정용철 박정수 김시환 정정숙 김양숙 김혜련
- 홍보참모: 이영기 나희주 이제원 박동춘 최형렬 박두영 여옥기 이민화 우선자 구동철 최치순 원복순 금용숙 김정란 김영연
- 봉사참모: 성준경 홍정호 노송성 박두호 이병생 김동호 김준복 이경희 이승우 유형석 박동식 이순례 이영희 유명석 권순단

교우동정

- * 이은혜 양(중등부, 이규태·김은규 집사 딸)은 필리핀 오차드 C.C.에서 열린 제 19회 아시아태평양양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16일(목) 중등부 우승을 차지했다. 이 양은 현재 국가 상비군에 소속돼 있다.
- * 김용구·정옥수 집사(2교구, 영동다락방)는 19(월) 중국동에 '대왕미용실'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 이대중 성도(중등부 교사)는 노동부 사무관으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제 16차 APEC 인력자원개발 실무자회의의 참석차 24일 출국한다.
- * 이번 주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임옥균·박명자 집사 가정에서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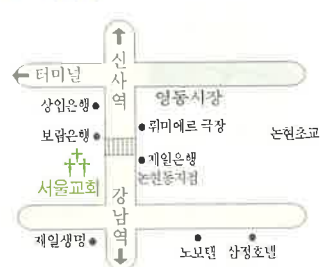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개혁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서울주간교회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일을 위해
2. 김치세미나에 참가한 아시아 지도자들을 위해
3.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4.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